

## 4.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세계평화와 협력: ‘오바마와 함께 춤을!’

### 조 민

통일정책연구실 실장

미국은 새 역사의 장을 열었다. 미국 제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으로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예고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팡파르가 울려 퍼질 분위기는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장 가닥을 잡지 않으면 안되는 엄중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경제의 회생’과 ‘국제질서의 안정’의 두 개의 타깃을 마주보고 있다.

지난 해 미국경제가 금융위기로 균형을 잃으면서 쓰러지자 미국경제와 깊숙이 연계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게 되었다.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미국경제의 회생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국 없는 국제질서의 안정을 상상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세계 평화와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기대된다.

#### **오바마의 미국, 현실주의를 넘어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미국의 국익만을 추구한다면 ‘스마트 파워’를 과시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평화와 국제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오바마의 미국은 ‘스마트 파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미국 중심의 논리와 주장으로는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없다. 미국의 리더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넘어 미국이 앞으로도 전 세계 인류의 꿈과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와 함께 세계는 지금 인류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오바마의 미국이 과연 얼마나 양보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쳐다보고 있다.

네오콘은 그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신념을 강조했다. 그들의 이상을 강압적으로 들이밀었고, 미국의 우월한 지위와 군사적 힘으로 가치를 구현하려 했다. 네오콘은 칼을 든 이상주의자 즉, ‘무장한 이상주의자’이지만 아직도 자랑스런 조국 미국을 망쳐놓은 데 대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전 세계는 부시 행정부의 강압적 일방주의에 아무도 따라주지 않았고, 그 결과 미국 혼자 외톨이가 되면서 추락하는 제국이 되고 말았다.

오바마의 미국은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국력과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현실주의를 넘어서는 이상주의도 필요하다. 미국의 국익을 넘어 금세기 인류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을 위한 이상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세계와 인류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가자는 연대와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오바마의 미국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의 이익에만 눈멀지 말고, 평화와 협력을 향한 열정 속에서 ‘현실주의적 이상 (Realistic Idealism)’을 추구하기를 바란다.

### 미국, 전략 목표 재조정해야

미국은 세 개의 주요 지역에서 야심찬 전략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왔다. 미국 대외전략의 성적을 중간 결산해보자. 첫째, 중동지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장을 펼쳤다. 그 결과 미국은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졌고 지금은 발을 빼기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전선 이동을 구상하여 중동 정세를 한층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NATO를 교두보로 러시아 국경까지 유럽의 확대를 추구했다.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중국과의 연대를 부추겼고 동유럽의 정세를 한층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셋째,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부시 행정부는 기껏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수준의 어정쩡한 봉합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는 데 자족할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전략 목표의 동시 추구가 불가피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의 독선과 일방주의는 상황을 한층 악화시켰다. 이처럼 엉클어진 국제정세 앞에서 이제 오바마의 미국은 냉철한 성찰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재조정하면서 변화된 국제정세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 국제협력을 향한 리더십

영원한 제국은 없다. 미국의 몰락을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미국이 꼬꾸라진다고 해서 당장 덕 볼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과 더불어 평화롭고 희망찬 세계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워싱턴과 베이징은 향후 상당 기간 세계경제의 양대 축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분업체계를 구축한 '치메리카(Chimerica: China-America)'로 부각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세계적 패권을 다투는 정치군사적 갈등이 현재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여 세계적 패권국가로 등장하기에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이 리더십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모범이자 인류사회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인류보편의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대안문명의 구심으로 우뚝 솟을 수 있어야 한다. 오바마 시대에 미중관계의 미래는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보다는 상호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동 문제가 세계평화의 핵심적 사안인 바, 미국은 중동 문제에서 보다 균형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구촌의 상식적인 평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의 편향적인 이스라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은 미국의 힘과 배경 아래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외면하는 이스라엘의 존재이유에 대한 회의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의 국제협력을 위해 오바마의 미국은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들을 만찬장에 초대해야 된다.

러시아와 협력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할 때이다. 특히,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전선 구축과 핵무기 감축을 위해서는 모스크바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러시아가 불합리한 선택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워싱턴과 모스크바 간 국제정치의 파트너십 구축이 요망된다.

### 이슬람 문명과의 화해, 문명의 공존 추구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테러리즘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이슬람 문명과의 화해를 추구해야 한다.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두루 아다시피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의 세계를 전망한 헌팅턴(S. P. Huntington)의 이른바 '문명의 충돌'이 서구 사회에 커다란 반



향을 일으켰다. 그의 문명충돌론은 냉전 이후 소련이라는 ‘절대 악’이 사라진 세계에서 엄청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적을 만들어내야 했던 미국의 요청에 교묘히 부응했던 논리였다. 국제정치 무대 위에 새로운 ‘가상의 적’이 필요했던 미국의 군산학(軍産學) 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세계적 병영국가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대외 긴장과 함께 기독교 문명권의 적절한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한 몫 했다.

그런데 문명충돌론의 귀착점은 어디였던가? 나는 ‘문명충돌론’과 같은 발상이 결국 ‘9·11’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문명충돌론’은 미국의 완력가들에게는 눈과 귀가 번쩍 뜨이는 복음으로 들렸겠지만,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과 이슬람 세계 사이에서 화해하기 어려운 증오와 불신을 불러일으킨 ‘재앙적’ 발상이었다.

오바마의 미국은 이슬람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이슬람과의 ‘세계사적 화해’는 미국을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야말로 세계사적 화해와 더불어 ‘문명의 공존’을 향한 인류사적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운명적인’ 존재라고 확신한다.

### **‘핵무기 없는 세계’ 추구해야**

핵무기는 지난 세기 냉전체제의 산물이다. 공포의 균형 논리에 의한 핵 억제력은 케케묵은 논리로 더 이상 국가안보 전략으로 통용될 수 없다. 핵무기는 테러리스트를 위협하거나 테러를 억제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오히려 핵무기가 테러 그룹의 수중에 들어가는 순간 악몽의 시나리오는 마침내 현실화된다. 이처럼 자멸적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에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핵무기 제로’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인사들도 궁극적으로 지구상에서 핵무기는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세계 평화의 굳건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 속에서 세계적 차원의 적극적인 핵감축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은 오바마의 미국과 함께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 속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은 평화와 협력을 향한 새로운 미국을 이끌어 가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 오바마와 함께 춤을!

